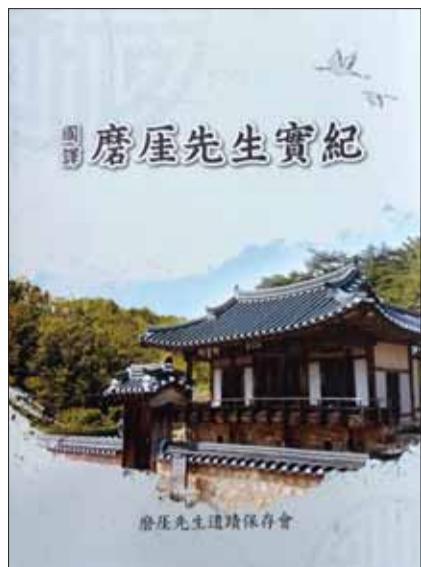


# 마애(磨厓) 권예(權輓) 선생 학술대회 개최



국역마애선생실기



권용주(왼쪽) 마애선생 유적보존회 회장이 이재업 성균관 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는 일은 합당하지 않으며 신무문(神武門)도 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고 직격탄을 날린다. 이에 중종은 “대저 기밀이란 한결같지 않아서 정대히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고, 비밀리에 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마애는 중종의 변명에 “반정 때의 일도 광명정대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일은 바를지라도 그 방법은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직언했던 강직한 분이다. 25세의 청년 마애의 기개와 결기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마애는 흥문관 대재학, 병조참판, 사헌부 대사헌, 경상도관찰사, 사간원대사간, 의정부우참찬,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한다. 1538년 5월 어머니상을 당하여 안동으로 낙향한 후 10여년 동안 낙강정(洛江亭)을 건립하는 등 은거하다 1549년 별세한다. 퇴계는 강직하고 공명정대한 마애를 애도하며 만사(輓詞)에서 “당당한 대궐에서 일찍이 우뚝한 등랑이었네 堂大棟曾隆, 전 번 달군 진귀한 보배는 녹이기 어렵고 千燒至寶難鉛化, 백 번 정련한 군선 절은 꺾이지 않았다네 百鍊精剛未挫鋒”라고 칭송한다.

또한 퇴계는 마애에 의해 건립된 낙강정을 1546년 3월 배를 타고 방문하여 7안질구 한 수를 남긴다. 작은 배로 낙강강을 가로질러 건너小舟橫渡一江天. 떠 있는 배 속의 퇴후한 현인을 배알하네 草屋中間謁退賢. 상락암 앞의 천길 강물을 上巖前千丈水, 이제부터 판서연이라 부르리라 从今喚作判書澗. 마애 선생을 존모하는 마음이 묻어 난다. 낙강정은 오랜 세월 속에 훼손되었다가 365년 뒤인 1806년 그의 7대 손인 초은(樵隱, 권당(權讓, 1731~1812)과 학림(鶴林) 권방(權訪, 1740~1808)에 의해 중수된다. 이후 60년 뒤인 1865년(고종2년) 9세손 권희 등이 이건하였고, 또 70년 후인 1935년 14세손 권백원(權百源) 등이 다시 중수하였다. 1985년에는 정자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권주학(權柱赫), 권순창(權純昶) 등이 옛터에서 백 보떨어진 곳에 이전하였다. 2011년에는 17대손 낙강정 권용주 보존회장의 신청으로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황 교수는 향후 마애의 고귀한 정신을 전승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책임은 후손들과 후학들에게 있다고 하며 밝표를 맡겼다.

“마애선생실기(磨厓先生實記)”를 직접 번역한 권갑현 동양대학교 명예교수(종보편집위원장)는 “마애 권예의 실기 편찬 내력과 우음시 7수 풀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예교수는 마애선생의 유시(遺詩) 19제(題) 38수(首) 중에서 만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우음시(偶吟詩) 4제 7수를 풀이했다. 다음은 문득 옮다리는 우음(偶吟)이라는 시인데 대체로 작자가 마음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로 읊은 것을 말한다.

爲愛新晴坐野亭(위애신청좌야정)  
막 간 하늘 사랑하기에 들 정자에 앉으니  
山光滴翠入蜂清(산광적취입모청)  
산 빛나 푸른 물방울 맑게 눈에 들어오네  
日暘曰雨知時節(왈여왈우지시절)  
해가 난다 비가 온다 하니 시절 알겠으니  
應識明年唱泰平(응식명년창태평)  
응당 내년에 태평이 불러올 수 있으리라

마애선생의 사적(事蹟)과 시문(詩文)은 선생의 증손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대에 걸쳐 수집되어 신후(身後) 320년이 되는 1868년에 처음으로 목활자본 2권 1책이 간행되었다. 다시 120여년이 지난 1990년에는 『왕조실록』을 열립하여 찾은 마애선생의 임조사적 23항목과 거기에서 부록으로서 기준의 연보를 보완한 것 등을 붙여 2권 1책으로 전산(電算) 편집하고 이를 기준의 목활자본 2권 1책과 합하여 전제 4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다시 2013년에 세운 신도비 글들과 이번 국역 과정에서 발견된 마애선생 시장(謫狀) 등이 추가되었다.

마애선생의 관직 생활 20여년 동안 언관(言官)으로서 임금에게 올린 계자(徵劄) 등의 사적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에서 196건이나 검색된다. 한편 사환(仕宦)의 여가에도 적잖은 시문을 저술하였을 것이며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후 10여년 동안 은거할 때도 많은 저작이 있었을 것이나 현재 전하는 것은 19제(題) 30수(首)의 시(詩)와 해진 고지 5장뿐이다.

『왕조실록』에 나오는 임조사적이 상세하고 풍부하여 20여년의 관직 생활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나, 경연(經筵)에서 『근사록』을 시강(侍講)하였다는 사실과 저작(著作)한 시문(詩文) 19제 38수의 시(詩)밖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생의 학문 세계는 물론 사승(師承) 관계나 교유(交遊) 관계도 알 수 없으며 만년의 삶 또한 자세히 밝힐 수 없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하며 밝표를 마쳤다.

이날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안동권씨대종회 권예회 회장, 안동권씨부정공과 문해문중, 부정공과 안동돈목회(敦睦會), 학교법인 유흘학원 권영희 이사장 등 6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대형화환을 보내왔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국역 마애선생실기”와 논문 발표 책자를 나누어 주고, 안동간고등어를 선물로 전달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박원갑 이사장 축사



마애학술대회 전경

## “양촌 선생, 과거시험보다” 행사 개최

충북 음성군 문화체육과에서는 “양촌 선생, 과거시험보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음성군은 음성향토사연구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11월 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촌기념관과 권근상대묘소 일원에서 전통 문화체험과 2021년 유랑유람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양촌 선생, 과거시험보다” 행사를 개최했다. 관내 중학생 및 교사는 비롯해 강사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음성향토사연구회에서는 청주향교의 협력을 받아 본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했다. 특히 조선시대 문형(文衡)인 대제학(大提學)을 최초로 지냈고 조선이 건국된 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성(守成)의 철학과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양촌(陽村) 권근(權近, 16세, 출밀공파, 1352~1409)을 본 사업의 주제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이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행사를 주관한 음성향토사연구회 김영규 회장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양촌 선생의 문충공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오윤 회장(가운데)이 곤봉포로 의관을 정제하고 과거시험을 주관했다.

질문(편집국장 권행완):

“회장님 안녕하세요. 음성군과 음성향토사연구회(회장 김영규) 주관으로 “양촌 선생, 과거시험보다” 행사를 개최하는데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회장 김영규  
음성향토사연구회

답변(김영규 회장):

“성군 문화체육과(과장 안예순)는 2020년 충청북도의 ‘유랑유람문화재 활용사업’에 지원하여 충청북도의 사업지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여기에 음성군의 군비를 더하여 2021년 ‘양촌 선생, 과거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2021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5일 3차례 ‘양촌 선생, 과거시험’을 그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금번 11월 6일에는 ‘양촌 선생, 과거시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과거시험 제연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만든 것은 음성군 문화체육과이고 음성향토사연구회는 이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음성군의 역사문화민간단체입니다.



장원급제자 음성여중 권희연, 급제한 사람에게 내리는 꽃, 어사화(御賜花)가 꽂힌 관모를 쓰고 있다.



과거시험에 열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과거시험 제연행사 참가자들이 양촌 권근 상대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과거시험 제연행사 참가자들이 양촌 권근 신도비를 둘러보고 있다.

고맙겠습니다.

질문(편집국장):

“음성향토문화연구회는 언제 발족되었고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요.”

답변(회장):

“음성향토문화연구회는 1963년 만들어진 지역의 역사·문화·문화유산 등을 조사 연구하는 학술 연구단체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가 연구에서 활용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문화유산 활용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읍면지 편찬, 군지 편찬, 지역 관련 사료집 편찬, 민속놀이 발굴·시연 등의 사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질문(편집국장):

“앞으로 “양촌 선생, 과거시험보다”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회장):

“‘양촌 선생, 과거시험보다’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